

총평

먼저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소방 문제가 공개된 후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법 8문제, 문학 6문제, 비문학 독해 5문제와 한자 문제 1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문법 문제 중에서는 2번 문제인 ‘문장의 종류’가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평소에 많이 접했던 문제였습니다.

문학 문제 중에서는 9번 문제인 ‘고궁’이 낯설고, 현대어 풀이가 없어서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한자 문제는 독음을 달지 않았으나 난도가 낮아 조금만 관심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독해 문제 또한 어렵지 않았으나 조금 길게 출제가 되어 시간 조절이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단계에 맞게, 착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은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해설

1. ①

‘기와집’은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② 지우+개(접미사)

③ 선생+님(접미사)

④ 개(접두사)+살구

2. ②

두 문장 모두 ‘합격하기를’, ‘찾음을’로 명사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안긴문장 속에 목적어가 있지는 않다.

① ㄱ. 우리 부모님께서 /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목적어 명사절] / 원하신다.

ㄴ. 우리는 /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찾음을[목적어 명사절] / 전혀 몰랐다.

③ ㄱ에는 안긴문장 속에 관형어가 없으나, ㄴ에는 ‘교통사고 발생의’라는 관형어가 있다.

④ ㄴ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없으나 ㄱ에는 ‘시험에’라는 부사어가 있다.

3. ④

‘막일’은 파생어로, ‘ㄴ’첨가와 비음화가 되어 [망닐]로 발음한다.

① ‘밝다’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가 되어 [박따]로 발음한다.

② ‘등불’은 합성어로, 사잇소리되어 [등뽳]로 발음한다.

③ ‘앞마당’은 비음화 되어 [암마당]으로 발음한다.

4. ②

‘모시다’는 목적어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높임이다.

① 할머니는 시장에 가셨다. → 가+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엿+다

③ 원래 어머니의 시력은 좋으셨다. → 좋+으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엿+다

④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높임 어휘가 사용되었다.

5. ④

‘물체를 쏘거나 던져서 어떤 물체에 닿게 하다.’는 ‘맞다’의 사동형인 ‘맞히다’를 쓴다.

예) 그 소년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과녁에 정확히 화살을 맞혔다.

①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의 의미를 가진 관용적 표현이다.

② ‘부딪치다’는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의 ‘부딪다’의 강세 표현이다.

③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의 의미로 쓰인다.

6. ②

‘홀이불’은 파생어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첨가와 비음

화(자음동화)가 되어 [혼니불]로 발음한다.

7. ③

‘-데’가 ‘경우, 일, 장소’일 때에는 띄어 써야 한다.

예) 의지할 데 없는 사람 /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8. ④

두 번째 단락, ‘비극의 관객들은 이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체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① 비극적 결함에 의해 파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것은 그리스 비극이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좋다고 보았으나, 불행한 결말이 비극에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③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근대의 비극이다.

9. ③

‘오려는 터밧치 여드레 그리로다’는 ‘올벼논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큰 땅(조선의 땅)이 되었도다.’로 해석되어 조선의 땅이 기름지고 넓어짐을 비유한 말이다.

현대어 풀이

집의 옷과 밥을 제쳐 놓고 이집 저집 빌어먹는 저 머슴(조정의 신하)아, 우리 집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조부모님(조선을 건국하신 이성계)께서 살림살이하려 하실 때, 어진 마음을 많이 쓰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서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일으키니, 올벼 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넓이로구나. 자손에게 이어 전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더라. 저희마다 농사를 지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요즈음 머슴들은 어찌하여 사려분별도 전혀 없어, 밥그릇이 크나 작으나, 겨울옷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을 꺼려서 반목(反目)만을 일삼느냐?

10. ③

세 번째 단락, ‘움직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면 줄의 길이는 물체가 움직여야 하는 높이의 두 배가 필요하게 된다.’

① 두 번째 단락, ‘고정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줄의 한쪽에 물체를 걸고 다른 쪽 줄을 잡아 당겨 물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움직인다.’

② 이 글은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함께 사용해야 물체의 무게가 분산된다’는 것은 틀리다.

④ 두 번째 단락, ‘따라서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비교해 힘의 이득은 없으며 단지 고정 도르래 때문에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만 바뀐다.’

11. ②

이 글은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이다.

12. ③

㉮는 먹고 살기 힘든 농촌 현실에 대한 슬픔과 한탄의 표현이다.

신경림, <파장>

◆ 성격 : 향토적, 서정적, 비유적, 서사적

◆ 표현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장터 → 농민들의 대화와 만남의 장

* 적절한 서사적 제재의 선택(파장)

* 일상어와 비속어의 적절한 구사로 농민들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냄.

◆ 중요시어 및 시구풀이

* 못난 놈들 → 서글픔이 내재된 친근감과 동료애의 표현

*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 시적 화자의 농민에 대한 진한 애정과 서글픈 현실 인식

*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 빗 얘기 → 농민들이 겪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유적으로 표현

* 서울이 그리워지나 → 이농에 대한 욕구라기보다는 농촌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탄식의 표현임.

* 8행 ~ 10행 → 울적하고 서글퍼진 마음을 달래보려 귀가를 뒤로 미루는 모습들 / 삶에 대한 절망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는 부분

*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 가난하고 소박한 농민들의 장바구니를 압축적으로 표현(삶의 애환)

* 절뚝이는 파장 → 농촌 현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부분

◆ 주제 :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애환과 시골 장터의 정취

13. ③

(가)는 ‘둘러 두고 보리라’에서, (나)는 ‘구뵈구뵈 퍼리라’에서 의지적 어조를 통한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두 작품의 한자 어휘는 유교적 이념과 관련이 없다.

② 두 작품 모두 선경후정의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

④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작품 (가)와만 관련이 있다.

14. ②

안빈낙도: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감.

① 교학상장: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진보시켜 준다는 뜻으로, 사람에게 가르쳐 주거나 스승에게 배우거나 모두 자신의 학업을 증진시킴.

③ 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바빠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대강 보고 지나감을 의미함.

④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부림을 의미함.

15. ①

이 작품은 베 짜기의 고달픔을 털어 주면서도 가족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노동요이다. 따라서 ‘노동 현실에 대한 한과 비판’과는 관련이 없다.

② 대구법은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 기

심 매고 올 적에는 올뿔을 따 가지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직유법은 '배꽃같이 바래워서 / 외씨 같은 보선 지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4조 4음보의 민요적 운율과 '갈 적에는 갈뿔', '올 적에는 올뿔'의 언어유희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하늘에다 베풀 놓고 구름 속에 이매 걸어'의

16. ①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는 입술소리로 'ㅂ, ㅃ, ㅍ, ㅍ' 등인데, 이 중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없다고 했으니 'ㅍ'이 첫 자음이다.

혀의 위치는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간다고 하였으니 고모음인 'ㅣ'와 저모음인 'ㅐ'가 모음이다.

17. ③

(라)단락, '상업화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방송이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낚이다'라는 말은 기사 제목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그것을 물었지만 소득 없이 기만만 당하였다는 의미이다

② '숨은 동조자'는 '우리'이다.

④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회사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18. ①

예시는 '가령'에서, 정의는 "즉 '낚이다'라는 말은 기사 제목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그것을 물었지만 소득 없이 기만만 당하였다는 의미이다."에서, 인용은, '마셜 맥루언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④

세 번째 단락, "아버지가 선물이라며 준 강아지는 내가 그때까지 보아 온 가족이 아니라 처치 곤란하고 '낯선 것'이었다."

여섯 번째 단락, '다만 관심과 연미에 반응할 수 있을 뿐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②

㉠의 '아버지'는 선물을 준 대상이고, 나머지는 나와 관련된 것들이다.